

『햄릿』과 영국의 종교개혁*

황 효 식
(충북대)

80년대 초반 이래로 영미에서 독세한 신역사주의 비평은 좌파 담론의 영향 하에 인종, 계층, 성을 주제로 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비록 역사주의적 방법론을 표방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에 토대를 둔 연구로 우리시대의 관심사를 과거의 작품에 투사하는 비역사적인 면을 보여주었다.¹⁾ 또 신역사주의 비평은 자의적으로 선별한 일화를 일반화하는가 하면 전통적인 역사학의 주요 연구 주제인 의회(Parliament)나 청교주의(Puritanism)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는 등 특징적인 약점을 드러내었다(Armstrong iv). 한편 30여년 전 바바라 르왈스키(Barbara Lewalski)가 『신교주의 시학과 17세기 종교시』(*Protestant Poetics and the Seventeenth-Century Religious Lyric*)(1979)에서 선구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이론적 연구의 대세를 극복하고 향후 신교주의와 관련한 영국의 르네상스 문학 연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Heller 374). 이 분야의 연구는 최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03-A00156).

1) 신역사주의의 비역사성에 대한 논의는 Stephen L. Collins, "Where's the History in the New Literary Historicism? The Case of the English Renaissance," *Annals of Scholarship* 6 (1989): 231-32, 236, 244 참조.

근 일군의 역사주의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아 더욱 활성화되었는데, 이들은 종교 시의 영역을 넘어 비종교적인 드라마로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시키고, 당대의 종교적 문제와 갈등의 제 양상을 해당 작품의 이해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시켰다.²⁾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세속화된 서구 사회에서 종교문제는 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 혹은 가정의 한 전통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큰 진통을 겪고 있었던 당시 영국 및 서구 사회에서 종교는 삶의 조건과 양식을 결정짓는 신념의 체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삶 자체를 희생해서조차 수호해야 될 무엇보다도 중대한 가치로서 인식되었다. 기독교와 관련된 셰익스피어의 종교 연구는 대부분 기독교가 하나로 통일된 종교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성서와 관련된 원형, 상징, 이미지, 담화 등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는 종교개혁이라는 셰익스피어 당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쟁적 측면이 극대화된 이 시대의 종교는 마음에 평화와 통일감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긴장과 갈등의 중심이고 원천이었다고 하겠다.³⁾

셰익스피어(1564-1616)가 태어난 시기는 영국사회가 종교개혁으로 인한 쓰라린 분열과 갈등을 체험한 후 그것들이 가져온 폐해와 부작용을 극복해보려는 정치적, 종교적 노력이 경주된 때였다. 1558년 등극한 엘리자베스 여왕(Queen Elizabeth)은 메리 여왕(Queen Mary)에 의해 가톨릭으로 기울었던 영국을 다시 개신교 국가로 복구하고, 헨리 8세 이래로 설립된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를 중심으로 신 구교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대를 살며 셰익스피어 자신도 신 구교 간의 갈등을 예민하게 체험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의 전기적인 면을 몇 가지만 고려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그는 가톨릭 신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아버지의 가정에서

2) 이러한 비평가들로는 Ernest Gilman, Debora Shuger, Bryan Crockett, Stephen Greenblatt, Jeffrey Knapp 등을 들 수 있다. Huston Diehl,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Cornell UP, 1997) 7 참고.

3) 기존 문학연구의 기독교적 접근에 관한 비판과 종교의 분쟁적 측면과 대한 관심의 제고는 Clifford Geertz의 견해에 따름. Diehl, *Staging* 3 참고.

태어났으며 그가 성장기를 보낸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본(Stratford-upon-Avon)도 구교가 강세인 지방의 한 보수적인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향을 떠나 신교의 기운이 충만한 런던에 와서 배우, 극작가로 활동하였다. 신교의 영향을 받은 런던 관객은 반 가톨릭적 성향을 띠었으며 이는 자국에 대한 애국적 정서와도 쉽게 결합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분위기 속에서 관객과 그 시대의 새 기운을 호흡하며 창작활동을 한 셰익스피어는 구교 중심의 보수적인 스트래트포드에 머물던 자기 자신과 어떤 방식으로든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을 것이다. 또 당시 궁정이 중세 이래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톨릭 드라마를 종교적인 이유에서 억압하는 한편, 상업극장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후원한 측면,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귀족 후원자들이 대부분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셰익스피어가 신교에 순응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된다⁴⁾.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개인적으로 가톨릭인지 신교도인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또 이러한 개인의 신앙적인 귀속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해도 이것이 그의 작품의 해석에 우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종전에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종교적 비평에서 집안내력과 관련한 전기적인 고찰에 힘입어 그를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고 연구하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셰익스피어와 가톨릭과의 복합된 관계를 전제로 하되, 어떻게 그가 당시의 신교주의와 타협, 절충해 나갔는가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Taylor 1).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문제는 비록 과거에는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셰익스피어의 극 작품을 역사적 문맥에서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셰익스피어가 개신교의 담론과 수사에 여하히 접근하고 이를 어떻게 변용하였는가? 또 종교개혁이 물고 온 갈등과 모순을 극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어떻게 검토하고 대응 하였는가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햄릿』(*Hamlet*)(1600)을 하나의 연구사례로 택해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한적이거나 모색해 볼 것이다.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경험과 사고가 원숙기에

4) 종교개혁과 관련한 셰익스피어의 전기적 측면과 극작 상황은 Huston Diehl, "Religion and Shakespearean Trage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an Tragedy*. Ed. Claire McEachern (Cambridge: Cambridge UP, 2002) 86-88 참고.

이르렀을 때 쓰여진 비극들 중 하나이며, 작가가 신 구교의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 뿐 아니라 종교개혁이 가져온 모순과 갈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영국의 종교개혁의 역사와 개념, 그리고 그 쟁점들을 간단히 일람해 보기로 한다. 종교개혁은 중세기에 극성에 달했던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면서 드러낸 병폐와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일어나게 된 범 유럽적인 종교, 정치, 사회 운동이었다(Rivers 94). 개혁자들은 기존의 제도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져 기독교 정신의 본질에서 많이 이탈하였다고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제도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서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초대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설교와 독서를 강조하는가 하면, 전례를 위주로 하고 공동체적 선행을 중시하는 기존 제도 교회의 가르침과는 달리, 신앙의 본질을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에서 구함으로써 매우 내면 지향적인 특성을 보여 주었다.

루터(Luther)와 칼빈(Calvin)에 이르러 체계화된 개신교 교리는 역설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낙원 상실 이후 인간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으며,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이성(reason)조차도 타락해 맹목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선행의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을 따름이요, 구원은 나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하느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것이다(Rivers 113).

영국에서는 루터와 칼빈의 교리가 설교집, 해설서, 소책자 등으로 출판되어 널리 유통되었고 이들의 개신교 교리의 개념과 용어는 영국민들에게도 친숙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무정형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성격이 그러하듯이 루터와 칼빈의 교리에 대한 승인의 정도에는 영국의 개혁자들 사이에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영국에서 신교 개혁운동은 에드워드 6세(Edward VI) 치세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르지만 이어 등극한 메리 여왕이 구교를 복구하려는 과정에서 영국 사회는 신 구교 간의 심각한 반발과 갈등으로

찢기게 된다. 메리를 계승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교적인 미덕보다는 종교의 정치적인 이용에 더 관심이 높았다. 그녀는 중도 노선을 정책적으로 채택하여 신 구교로 양분된 영국사회를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데 신 구교 갈등의 중심에는 예식(ceremony) 문제가 놓여 있었다. 구교 파의 견지에서 보아 예식은 오랜 교회 전통 속에서 형성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형식이었다. 하지만 신교파의 입장에서 볼 때 영국 교회에서 남아 있는 구교 예식은 척결되어야 할 우상 숭배의 잔재였다. 이미지(혹은 예식) 타파 사고의 저변에는 우상에 현혹되기 쉬운 시각을 위협시키고, 대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청각을 신뢰하는 신교 교리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헨리 8세 당시에 표명된 영국 교회의 예식에 대한 입장은 중도적이며 실용적이었다. 이에 따르면 예식은 그 자체가 예배자를 신성하게 하거나 죄를 사해 준다거나 하는 힘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질서와 평온의 마음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질서의 유지와 전통적인 권위의 보호를 염두에 두고 헨리 8세는 사원 철폐 시 우상 타파에 대해 전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경우에도 이미지들 중에 남용된 이미지와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구분하고 그 중 남용된 이미지만을 타파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구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Philips 112-14). 이 문제에 관하여 신 구교 간의 통합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마련해 준 자는 리처드 후커(Richard Hooker)였다. 그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하였으나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 회복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올바른 이성”(right reason)에 의지하여 인간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탐색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다(Rivers 116). 그리고 예식은 원시사회에서도 인간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듯이 필요한 것이며 그 형식은 항상 내용과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영국사회는 대 통합 정책에 의해 비교적 안정을 이루었던 엘리자베스의 치세가 지나자 점차 신 구교로 양분화 되었고 결국에는 극단으로 치달아 청교도 혁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내란을 맞게 된다. 공위 기간 중 개신교는 분파주의로 말미암아 결국 통합된 형태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였고, 크롬웰(Cromwell) 사후에는 붕괴의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왕

정을 복고하고 종교적으로는 국교회를 중심으로 타협을 모색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긴 여정 가운데서 초기 시대를 산 종교개혁 일 세대 작가라고 할 수 있다(Diehl, "Religion" 86). 종교개혁의 파장은 신구교의 극단을 오갔지만 결국 국교회를 중심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의 초석은 종교개혁 일 세대에 이미 놓여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는 엘리자베스의 통합정책이 실현되었고, 이론적으로는 후커의 신학체계가 빛을 보았으며, 극장에서는 셰익스피어가 왕성하게 극작 활동을 한 때이기도 하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가 언급 하였듯이 문학 작품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반영이지만 그 과정이 늘 투명한 것은 아니다. 작가는 역사적 사건을 재연하는 가운데 해석을 가하며, 사건에 대한 독자나 관객의 이해에 개입하고 기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소망과 기대를 드러낸다(Diehl, *Staging* 3). 이점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그 향방을 모색하는 시기에 셰익스피어가 극작의 방법을 통해 기여한 부분도 마땅히 주목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종교개혁에 관한 셰익스피어의 극적 대응 및 변용의 사례들을 『햄릿』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햄릿은 위텐베르그(Wittenberg)에 유학 도중 부왕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한다. 루터가 95개조를 교회 문에 써 붙임으로서 종교개혁의 첫 봉화를 올린 위텐베르그라는 도시는 그 곳의 주민이었던 햄릿의 신교적 취향과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복을 입고 있는 햄릿의 모습을 보고 “왜 그다지 유별나 보이냐?”(Why seems it be so particular with thee)(1.2.75)고 하는 어머니의 말은 유독 검은 색 상복을 입고 시름에 잠겨 있는 햄릿의 모습과 관련하여 극단적 신교파인 퓨리탄에 대한 당시 영국민들의 관습적 비판을 연상케 한다. 실제로 거어트루드(Gertrude)와 오펠리어(Ophelia)에게 퍼붓는 햄릿의 격앙된 대사는 퓨리탄 설교의 특징적 수사와 어투를 보여준다.⁵⁾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일관성 있게 퓨리탄의 특징을 대변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엘지노어(Elsinore)

5) 햄릿과 퓨리타니즘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R. Chris Hassel, "The Accent and Gait of Christians: Hamlet's Puritan Style." *Shakespeare and the Cultur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England*. Eds. Dennis Taylor and David N. Beauregard (New York: Fordham UP, 2003)를 참고.

궁성을 방문한 배우들과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그는 내용과 형식이 조화된 절도 있는 대사를 하도록 충고하고 있는데, 이는 극장에서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당시 퓨리턴 설교사들의 즉흥적인 설교 방식을 경계했던 튜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Hassel, "The Accent" 112).

어머니의 위 말에 대해 햄릿은 상복은 걸치레가 일 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한다.

같이 보인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대로인 거지요.
 전 '같이보인다'는 말은 모릅니다.
 어머니, 저를 진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새까만 외투도, 의례적으로 입는 이 검은 상복도 아닙니다.
 억지로 우려내는 긴 한숨도 아니요,
 넘치는 강물 같은 눈물도 아니요,
 낙담한 얼굴 표정도 아닙니다.
 그 밖에 슬픔을 드러내는 온갖 모습과 기분과 모양도 아니지요.
 이들이야말로 같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누구나 그럴 듯하게
 꾸며 낼 수 있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밖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은 그저 비애의 장신구와 의복일 따름이지요.

Seems, madam! Nay it is. I know not 'seems.'
 'Tis not alone my inky cloak, good mother,
 Nor customary suits of solemn black,
 Nor windy suspiration of forced breath,
 No, nor the fruitful river in the eye,
 Nor the dejected 'havior of the visage,
 Together with all forms, moods, shapes of grief,
 That can denote me truly. These indeed seem,
 For they are actions that a man might play,
 But I have that within which passeth show--
 These but the trappings and the suits of woe. (1.2.76-86, 필자 밑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내면”(that within)인데 햄릿은 자신의 관심은 외면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에 있음을 강조한다. 내면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는 마음에 대한 언급이 매우 자주 나온다. 햄릿은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눈”(mind's eye)(ll. 186)에서 아버지를 보았으며, 유령은 햄릿에게 “마음”(mind)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어머니는 “가슴”(bosom)에 박힌 가시가 찌르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한다(1.5.85-88). 또 유령의 발설을 근거로 햄릿은 클로디어스(Claudius)의 “양심”(conscience)을 뒷에 걸어 보고자 연극을 상연하며(2.2.591),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친구들을 심복으로 삼아 햄릿의 “마음 속 비밀”(the heart of my mystery)을 캐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3.2.351). 이렇듯 이 극에서는 인간의 “내면,” “양심,” 그리고 “마음”에 대해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월터 코헨(Walter Cohen)은 이러한 내면성에 대한 관심을 개신교의 성경 읽기 및 성찰의 생활에서 온 결과로 본다. 르네상스 시대 문학 작품이 성취한 내면적 주인공들의 심리적 복잡성은 이러한 개신교 풍토에서 나온 의도하지 않았던 수확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극에서 독백의 사용에 주목하고 있는데 (47), 사실 『햄릿』에서 우리는 고도로 발달된 다수의 독백 형식을 통해 인물의 내면 흐름을 구석구석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3막과 4막에 나오는 햄릿의 독백들--“사느냐 죽느냐. . .”(To be or not to be. . .)(3.1.56-88)와 “어찌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질책하고. . .”(How all occasions do inform against me. . .)(4.4.32-66)--은 화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벌이고 있는 면밀한 자기 검토의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 내면에 관한 관심은 개신교에게만 국한된 특질이 아니라 개신교와 가톨릭 양자에게 모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Hassel, "The Accent" 105; Maus 15-16) 코헨의 주장은 한계를 드러낸다. 캐더린 이사먼 모스(Katharine Eisaman Maus)는 내면에 대한 이 시대의 각별한 관심을 종교개혁이라는 신 구교 간의 역사적 갈등 상황에서 찾음으로써 내면성을 개신교의 특성만으로 본 코헨의 주장보다 훨씬 균형이 있고 개방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종교 통합 정책은 국교회로의 통합을 강제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적 신념을 달리하는 개인은 공식적으로는 국교회의 교리와 예배에 순응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이중적인 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메리 여왕의 치세와도 같이 구교로 복고하는

시기를 맞이하였을 때 신교파 개인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외국으로의 망명을 선택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살아야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중생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여러 차례의 종파 싸움을 겪으며 정권이 가톨릭에서 개신교, 개신교에서 가톨릭, 다시 개신교로 바뀌어가면서 영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압박이 컸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마음 속 비밀’로 지니고 숨겨야하는 것이 개신교도이든 가톨릭교도이든 생존을 위한 전략적 관행이 되었다. 이점에서 내면에 대한 예민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된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의 시대였다고 하겠다.⁶⁾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작품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예가 남의 ‘마음 속 비밀’을 캐려고 하는 자와 자신의 ‘마음 속 비밀’을 숨기고자 하는 자의 대결 양상이다. 겉으로는 보여 줄 수 없는 “내면”(that within)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햄릿이 유령을 만난 후로부터 “기이한 성향”(antic disposition)을 보이자 클로디어스는 햄릿의 친구 로즌크랜츠(Rosencrantz)와 길든스틴(Guildenstern)을 시켜 햄릿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떠보게 한다. 햄릿은 선불리 자신의 ‘마음 속 비밀’을 캐려드는 이들을 피리를 비유로 들며 호되게 질책한다.

자, 보게나, 자네들이 나를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
 자네들은 나를 피리 삼아 불려고 하고, 나란 놈의 피리 구멍을 다 아는
 체하고, 내 마음 속 비밀을 끄집어 내려하지. . . .
 제기랄, 자네들은 내가 피리보다도 더 불기 쉽다고 생각하나?

Why, look you now, how unworthy a thing you make of me!
 You would play upon me, you would seem to know my stops,
 you would pluck out of the heart of my mystery. . . .
 'Sblood, do you think I am easier to be played on than a pipe! (3.2.349-57)

외부의 침범을 불용하는 예민한 내면의식은 종교개혁이라는 특별한 시대적 상황에 의해 계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셰익스피어는 이러한 내면의식을 위

6)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atharine Eisaman Maus, *Inwardness and Theater in the English Renaissance* (Chicago: U of Chicago P, 1995) 18-24 참고.

와 같은 극적 상황의 제시를 통해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런데 햄릿도 또한 타인의 '마음 속 비밀'을 탐색하는 작업으로 클로디어스의 양심을 걸어보는 연극을 공연한다. 이 작업은 성공적이었고 양심에 일격을 받은 클로디어스는 형제 살해의 죄에서 오는 괴로움을 덜기 위해 참회의 기도를 하려하나 실패한다. 이때 어머니의 내실로 향하던 햄릿은 그가 마음 속 비밀을 털어 놓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다. 그런데 클로디어스의 회개는 자신도 인정하거니와 현재 죄의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불량 고백(bad confession)의 한 사례라 하겠다. 악인이지만 그도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죄의 댓가로 괴로워하는데, 이는 하느님이 주는 징벌의 고통이지 구원의 조짐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또 햄릿은 내실 장면에서 퓨리턴 설교사의 독선적이고 과장된 어투로 거어트루드를 비난한다. 그녀의 반응도, 햄릿과의 첫 대사에서처럼, 왜 이리 야단스러우냐는 핀찬의 말로(Ay me, what act, / That roars so loud and thundered in the index?(3.4.52-53)) 퓨리턴적 수사에 대한 당시의 통념적 반응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햄릿이 아버지와 클로디어스의 초상을 극적으로 보여주며 거어트루드의 양심을 일깨우자 그녀는 여지껏 보지 못하던 자기 영혼의 일룩과 대면하게 된다.

오 햄릿, 그만 말해라.
내 눈이 바로 내 영혼을 보게 해주었으니.
그런데 거기에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검은 반점들이 보이는 구나.

O Hamlet, speak no more:
Thou turn'st mine eyes into my very soul;
And there I see such black and grained spots
As will not leave their tinct. (3.4.90-92)

거어트루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인식하지만 이후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점에서 그녀도 클로디어스의 경우와 같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햄릿은 남의 양심을 걸어보거나 자극함으로서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갖는가 하면 또 자신의 양심을 이성적 방법에 의존해 스스로 고찰함으로써 자기 내면을 탐색해 나간다. 하지만 햄릿의 자기 내면에 대한 탐색은 반성에 의해 오히려 움츠러들며 와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성적 추구의 한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3.1.56-90), 무위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자학적인 면을 드러내기도 한다(4.4.32-66). 햄릿은 이미 첫 번째 독백에서 자신의 살을 “너무나도 더러운”(too too sullied)(1.2.129)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극도의 자기 혐오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의 생명의 근원인 어머니의 타락이 자식인 그에게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켈빈주의 개신교 교리에 따른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가 오펔 리어에게 말하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독설도 이러한 생각과 동일선 상에 있는 것이다(3.1.121-30).

로마서에서 바울 성자(St. Paul)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허락지 아니하노니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함이라”(For that which I do I allow not; but what I hate, that do I)(7장 15절)고 말하며 타락한 인간 실존에 대한 통렬한 자각을 토로한다. 휴 M. 리치몬드(Hugh M. Richmond)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개신교 교리가 성서에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자기혐오에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인간의 타락과 이에 따른 역설적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입이라고 말한다(519). 햄릿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루터의 교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언사에 그칠 뿐 마음에 어떤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⁷⁾ 교리적인 면에서 햄릿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인식과 통찰에 머물 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햄릿은 여전히 이성적 방법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는 호레이쇼에게 “천지에는 철학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많다”(There are more things in heaven and earth / Than are dreamt of in your philosophy)(1.5.166-67)고 하면서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적 추론에 입각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려는 근대적 지성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극의 결말부에서 햄릿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덴마크로 귀환하는데

7) Hassel, "Hamlet's" 614 참고.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무덤을 파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도중 요릭(Yorick)의 해골을 발견하여 치켜들고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교적인 애상이나 체념의 정서로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하느님의 뜻으로 귀결된다는 믿음을 지니고, 클로디어스가 자신을 살해하기 위해 기획한 결투에 임한다(5.2.208-11). 햄릿이 극의 결말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은 개신교의 교리에 따른 것으로 다른 아난 루터파 등이 주장한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주재(superintendence) 개념에서 가져 온 것이다.

하지만 햄릿의 이러한 성격 변화는 극의 내적논리로 설명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전의 햄릿과 비교해 역설적이고 모순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휴스턴 딜(Huston Diehl)은 “이 시점에서 셰익스피어의 가장 지적이고 회의적이며 자기 반성적인 주인공이 다만 그의 믿음--알 수도, 입증할 수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을 기초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면서 “이 모순되고 역설적인 인물--복종하고자 하는 반항자, 확실성을 추구하는 회의론자,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지성인--에 대한 묘사에서 이 극은 초기 개신교가 개인에게 끼친 압박을 탐색하고 있다”고 논평하였다(93). 케네쓰 S. 로쓰웰(Kenneth S. Rothwell)은 이전의 햄릿을 외부세계를 지배하려는 원심적 인간형으로 르네상스 인이라고 보는 반면, 변화한 햄릿은 내면 지향의 구심적 인간형으로 종교개혁 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햄릿이 한 개인으로서 상충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당시 런던에 망명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위그노파 사상가 필립페 뒤플레시스-모네이(Philippe Duplessis-Mornay)(1549-1623)의 신교 사상이 셰익스피어에게 끼친 영향을 가정하여 이 문제를 햄릿의 종교적인 깨달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90-94).

햄릿의 성격의 변화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부분의 시도들은 로쓰웰의 경우처럼 개신교 교리를 도입하여 그의 변화를 전지전능한 신의 뜻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햄릿의 향해 이전과 이후 사이의 간극을 개신교의 교리를 도입하여 메우는 것 보다는 양자를 끝까지 모순되고 역설적인 상황으로 포착하고 이를 종교개혁의 시대가 개인에게 준 삶의 도전으로 이해하는 딜(Diehl)의 입장이 작품의 비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대적 갈등의 맥락 속에서 햄릿의 문제를 파악하는 보

다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신 구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예식의 문제도 이 작품이 종교개혁과 관련해 재연하고 있는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이다. 햄릿은 궁정을 방문한 유랑 배우들에게 당시 극장의 폐해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에 대해 한 배우가 “저희가 다소간 그 문제를 개혁했다고 봅시다만”(I hope we have reformed that indifferently with us, sir)이라고 말하자 햄릿은 “오, 전부 다 개혁하라!”(O, reform it altogether)라고 대응하는데(3.2.34-36) 이는 분명히 당시 영국 교회에서 예식 문제를 두고 그 개혁의 정도에 대해 온건파와 급진파 개신교 지도자들이 벌였던 논쟁의 양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예식의 문제가 작품과 개입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선왕의 장례식에 이어 치러진 클로디아어스의 대관식과 결혼식은 국가의 예식으로서 기품과 권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햄릿의 입에서 나오는 예식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장례식에 곧 이어 거행된 결혼식의 부적절성에 대한 것이다(1.2.180-81). 그 뿐 아니라 대관식을 포함하여 클로디아어스가 왕으로서 행사하는 예식도 거저된 권위의 행사이므로 결국 내용이 없는 허위의 의식이다. 그런가 하면 어두운 밤 엘지노어(Elsinore) 궁성에서 유령을 기다리다 연회에서 왕의 측배에 맞추어 발사된 예포 소리를 들었을 때, 햄릿은 저 예법은 덴마크 인들을 술주정뱅이로 욕 먹이게 하는 만큼 이제는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폐기해야 옳을 관습이라고 말한다(1.4.14-16).

오펔리어가 전에 햄릿이 준 사랑의 정표를 되돌려 주면서 “향기가 사라졌으니 / 가져가라”(Their perfume lost, / Take these again)(3.1.99-100)라고 말하는 대사에서도 예식의 특성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Zeeveld 72-73). 예식이라는 것은 국교회의 입장에 따르면 그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미화 하며 그 형식을 실행함으로써 신앙심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가치는 상황이 변화하면서 자의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 사랑의 정표의 경우도 그 정표가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것인데, 이제 만일 그 의미 즉 그 정표가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 정표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개신교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폐기된 가톨릭 예식들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겠다.

하지만 예식의 준수에는 신앙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오는 위안이 있고 이러

한 체험을 바탕으로 그 가치가 강화되는 속성이 있다. 그리하여 그것이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형되거나 억압되는 경우 그 예식의 실행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상실감은 지대한 것이다. 임종 도유의 예식을 받지 못하고 갑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게 된 데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유평의 경우나(1.5.77-79) 또 서둘러서 매장된 결과, 적법한 장례절차를 받지 못한 아버지뿐만 아니라(4.5.210-15), 여동생 오펠리어가 장례식에서 응당 받아야 할 예식의 합당한 절차를 자살자이기 때문에 다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애석해 하는(5.1.222) 레어티즈를 볼 때 임종도유나 장례 등에서 예식의 준수가 박탈되거나 억압될 때 당사자나 사랑하는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과 애석함은 지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극적 상황들은 종교개혁에 의해 천 년을 넘게 지켜오던 예식이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새로운 예식의 준수가 강요된 시기에 당시 영국인들이 직면한 상실감, 불안, 그리고 어색함을 부분적으로나마 재연해 주고 있다.⁸⁾

종교개혁 시대의 정치적 문맥과 관련하여 예식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은 이 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의 장례식을 지시하는 포틴브라스(Fortinbras)의 대사이다(5.2.385-89). 그는 햄릿의 장례 절차를 군인의 예식에 따라 치르라고 명한다. 현대 독자에게 이 말은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조치일 수 있다. 오펠리어가 말했듯이 학자요, 군인이요, 연인이요, 궁정인으로서(3.1.151-53) 이상적 르네상스 인의 귀감이라고 할 햄릿이라면 군인 뿐 아니라 학자, 연인, 궁정인으로도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포틴브라스는 장차 왕이 될 수 있었던 분이라고 햄릿을 추앙하면서 그의 장례를 군인의 예식에 따라 치르게 하는데, 여기에는 포틴브라스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덴마크의 왕이 될 포틴프라스는 자기와 같은 군인으로 햄릿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보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햄릿의 법통을 잇는 자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포틴브라스가 연출하는 ‘애도의 정치’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예식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이용의 대상이었다. 이는 종교개혁 시대에 후커를 비롯한 국교회 신학자들의 예식에 대한 견해이며, 마키아벨리가 군대에서 무장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교적 예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이

8) 종교개혁에 따른 예식의 변화가 영국민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는 Dichl, "Religion" 87 참고.

다(691). 위기의 시대를 맞아 정치적 생존을 위해 항시 통치술에 관심이 있던 르네상스 군주나 정치인들도 분명 예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효용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끝으로 작품에 나타난 유령과 관련된 문제를 종교개혁의 문맥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작품에 두 차례 등장하는 유령은 한 밤중에 나타나 날이 밝기 전 사라진다는 점이나 세네카의 비극에서처럼 복수를 요구한다는 면에서 각각 민간 전승적인 요소와 고전극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듯이(1.5.9-12) 가톨릭 교리에 근거한 연옥에서 온 혼령으로 간주된다. 유령은 단순한 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의 생생한 인물로서 극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Wilson 52-60) 불의의 암살로 말미암아 임종도 유식을 받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말하는 등 구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1.5.77). 햄릿은 처음 유령과 대면했을 때 신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즉각 유령에게 악령인지 아니면 신성한 혼령인지 밝히라고 다그친다(1.4.39-44). 하지만 연옥을 배제한 애초의 이런 태도는 연옥에 왔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유령을 대면하고 난 후 급격히 변화하여 햄릿은 연옥의 수호성인인 패트릭 성자(St. Patrick)를 두고 맹세를 한다든가(1.5.136) 지하에서 움직이는 혼령에게 말을 거는 등(II. 150-63)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처럼 유령의 실체에 대한 혼동된 언급이 유령에 대한 논의에서 흔히 있어 왔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포괄성을 가진 작가로 유령의 존재를 신비화하여 극적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210-11). 하지만 유령의 문제를 단순히 셰익스피어의 극작법의 탁월함으로 돌리기보다는 당대 종교개혁이 가져온 갈등과 대립에 대한 극적 대응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티븐 그린블랫(Stephen Greenblatt)도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유령과 관련한 혼동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불일치성”의 결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질적 요소들의 의도적인 결합”이라고 주장하였다(240).

영국의 국교회는 연옥에 대해 부인하였고 그리하여 죽은 이에 대한 기도도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령의 공포에 의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으로서 많은 영국민들에게는 강요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시대에는 영국교회로의 통합이라는 정부 정책 하에 표면적으로는 국교회의 교리와 예식에 따르면서도 내부의 종교적 신념은 달리 하는

니고데미즘(Nicodemism)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가톨릭 신앙과 예배 형식에 익숙한 이들에게 고해성사나 성물 및 성상 앞 기도 폐지는 너무나도 큰 상실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체로서 이들은 마법 혹은 극장이라는 상상적인 제의 등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셰익스피어는 신교 교회에 다녔으며 국교회의 입장에 순응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인 아버지의 가정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특히 그가 『햄릿』을 쓴 시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때보다도 죽은 이에 대한 관심이 컸던 무렵이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망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셰익스피어가 과연 무관할 수 있었을까? 위텐베르그에서 돌아와 신교의 입장을 견지했던 햄릿에게 연옥으로부터 온 아버지의 유령이 출몰하듯이, 신교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오던 셰익스피어에게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망부의 혼령이 출몰하는 내면적 갈등의 체험이 이 시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1막 5장 이후 유령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장소는 구중심처인 궁궐 가운데서도 겹겹이 통로들로 에워싼 가장 은밀한 장소인 왕비의 내실이다.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 장면(3막 4장)은 이 극 가운데 가장 내면적으로 깊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 동안 할 말을 다 못하여 억장이 무너지던 햄릿은 여기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며 어머니의 양심을 일깨우고 회개를 권면한다. 그런데 햄릿의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순간에 유령이 등장한다. 이 유령은 햄릿에게는 보이나 거어트루드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다. 이 장면은 개신교 교리를 극화하고 있는 뒤러(Albrecht Dürer)의 “네 명의 사도들”(The Four Apostles)(1526)이라는 그림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유령의 출현과 함께 보여주는 햄릿의 시선이라고 하겠다. 뒤러의 그림에서 화폭 밖을 바라보는 바울 성자(St. Paul)의 시선은 현상계를 넘어 영적 존재의 실체를 응시하고 있다. 이렇듯 햄릿도 영적 존재의 실체를 확실히 응시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그것이 가톨릭적 유령이라는 것이다. 양심과 회개, 그리고 현상계를 넘어가는 응시의 시선 등에서 볼 때 셰익스피어는 개신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서 극화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그 응시의

9) 연옥과 관련된 역사적 문맥과 셰익스피어의 전기적 사실에 대해서는 Greenblatt의 논의에 주로 의존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Stephen Greenblatt, *Hamlet in Purgatory* (Princeton: Princeton UP, 2001) 240-49 참고.

시선이 가톨릭적 유령의 실체를 확인하고 있는바 셰익스피어는 신 구교가 모순과 갈등 속에서 타협과 공존하는 가능성을 이러한 극적 상황의 제시를 통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혁은 영국을 결국 개신교 국가로 만들어 갔지만 유럽적인 모델과는 달리 신 구교간의 타협점을 모색하는 긴 과정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중도 정책, 신학적으로는 후커가 이룩한 국교회의 교리체계가 이러한 흐름을 형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셰익스피어도 극작의 방법으로 종교개혁의 갈등 상에 대해 고찰하고 재연함으로써 극작가의 한 사람으로 이 과정에 이바지하였다. 『햄릿』은 동요하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며 셰익스피어가 몸소 체험한 갈등과 모순을 극작을 통해 타협하고 중재해 나가고자 한 노력의 산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종교는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동시대적 문맥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긴요한 사항이지만 문학을 종교에서 분리시키고자 한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현대 셰익스피어 비평에서 합당한 관심을 받지 못한 면이 있다. 일례로 조오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와 같은 비평가는 셰익스피어의 세계는 종교가 부재한 인간 사회의 세계라고 했으며 그 근거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는 성경의 인용과 이미지들이 체계적이지 않으며 기독교 교리도 일관성 있게 개진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윤희억 195에서 인용). 물론 셰익스피어는 종교적으로 특정 교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입장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셰익스피어 연구에서 종교적 검토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런 입장을 기대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셰익스피어에 대한 기존의 기독교적 접근 방법은 기독교가 통일된 종교라는 전제 하에 수행됨으로써 종교개혁과 관련한 셰익스피어 시대의 긴급한 시대적 고민과 문제를 논의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행히 역사적 연구와 제휴한 보다 엄밀한 문학 비평가들의 노력으로 셰익스피어가 극작을 통해 기독교의 분쟁적 양상에 보인 관심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한 보다 견실한 이해와 탐구가 가능해 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시대의 간극을 넘어,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증폭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종교적, 문화적 가치 충돌 등 유사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주제어: 『햄릿』, 종교개혁, 기독교, 신교주의, 내면, 양심, 예식, 국교회 / *Hamlet*, Reformation, Christianity, Protestantism, inwardness, conscience, ceremony, The Church of England

Works Cited

- 윤희역. "『햄릿』의 유명." *Shakespeare Review* 34 (1998): 195-213.
- Armstrong, Alan. "Editor's Preface." *Literature and History* 5.1 (1996): i-iv.
- Cohen, Walter. "The Reformation and Elizabethan Drama." *Shakespeare Jahrbuch* 120 (1984): 45-52.
- Collins, Stephen L. "Where's the History in the New Literary Historicism? The Case of the English Renaissance," *Annals of Scholarship* 6 (1989): 231-44.
- Diehl, Huston.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Ithaca: Cornell UP, 1997.
- _____. "Religion and Shakespearean Tragedy." *The Cambridge Companion to Shakespearean Tragedy*. Ed. Claire McEachern. Cambridge: Cambridge UP, 2002. 86-102.
- Hassel, R. Chris. "The Accent and Gait of Christians: Hamlet's Puritan Style." *Shakespeare and the Cultur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England*. Eds. Dennis Taylor and David N. Beauregard. New York: Fordham UP, 2003. 103-27.
- _____. "Hamlet's 'Too, Too Solid Flesh'." *Sixteenth Century Journal* 25.3 (1994): 609-22.
- Greenblatt, Stephen. *Hamlet in Purgatory*. Princeton: Princeton UP, 2001.
- Heller, Jack. Rev. of *Staging Reform, Reforming the Stage: Protestantism and Popular Theater in Early Modern England*. by Huston Diehl. *Christianity and Literature* 47.3 (1998): 374-76.

- Maus, Katharine Eisaman. *Inwardness and Theater in the English Renaissance*. Chicago: U of Chicago P, 1995.
- Machiavelli, Niccolò. *The Art of War*. Trans. Allan Gilbert. *Machiavelli: The Chief Works and Others*. Vol. 2. Durham: Duke UP, 1989. 560-726.
- Phillips, John. *The Reformation of Images: Destruction of Art in England, 1535-1660*.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3.
- Richmond, Hugh M. "Richard III and the Reformation."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984): 509-21.
- Rivers, Isabel. *Classical and Christian Ideas in English Renaissance Poet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9.
- Rothwell, Kenneth S. "Hamlet's Glass of Fashion": Power, Self, and the Reformation." Ed. Patrack H. Hutton. *Technologies of the Self: a Seminar with Michel Foucault*.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1988. 80-98.
- Shakespeare, William. *The Pelican Shakespeare: Hamlet*. Ed. William Farnham. Penguin Books, 1970.
- Taylor, Dennis. "Introduction: Shakespeare and the Reformation." *Shakespeare and the Culture of Christianity in Early Modern England*. Eds. Dennis Taylor and David N. Beauregard. New York: Fordham UP, 2003. 1-9.
- Wilson, Dover. *What Happens in Hamlet*. Cambridge: Cambridge UP, 1976.
- Zeeveld, W. Gordon. *The Temper of Shakespeare's Thought*. New Haven: Yale UP, 1974.

Hamlet and the English Reformation

Abstract

Hyosik Hwang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y Europe suffered from the deep and drastic changes caused by the Reformation, the effects of which reached into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spheres in a full-scale. Though England is an anomalous case of the Reformation, she gradually transformed into a reformed nation. Living in an important period of the Reformation, Shakespeare (1564-1616) was a product of this turbulent age and also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dramatists who contributed to the shaping of the age.

This paper aims to respond to the following questions. How does Shakespeare address and redress the Protestant discourse and rhetoric? In what way does he examine and respond to the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raised by the Reformation by means of his drama? For this discussion I took *Hamlet* as a case study not only because this play was written when the playwright came to maturity in his career but also because his concern with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raised by the Reformation was intensively projected in it not to mention his interest in the doctrinal matters of the old and new religions. This paper investigates topics such as inwardness, the Protestant concept of repentance, human depravity, and providence together with other issues of the religions related to ceremony and ghost found in the play in the immediate context of the English Reformation.

Shakespeare did not give support to any specific religious sect but lived a highly engaged life as a dramatist addressing himself to conflicting religious matters of the time. Read in the immediate historical context, *Hamlet* is understood as one of the best efforts of the dramatist who negotiated with and intervened in conflicts and contradictions between the old and new religions contributing to the making of the mainstream of the English Reformation which would eventually prevail in the England to come.

황 효 식 (단독연구)

충북대학교 영문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hhwang@chungbuk.ac.kr

논문투고일: 5월 10일

논문심사일: 5월 11일 ~ 5월 31일

게재확정일: 6월 10일